

# 채용설명회도 SNS로... 롯데百貨 “내일 인스타서 만나요”

인스타 'lotteshopping'서 진행  
우수질문자 5명 1대1 상담기회  
직무 Q&A·근무 환경 등 주제  
인사담당 바이어 등 직접 출현



롯데백화점이 인스타그램에서 라이브 채용 설명회를 진행한다. /롯데백화점

롯데백화점이 유통업계 최초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한 채용설명회를 개최한다.

롯데백화점은 SNS를 활용해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인스타 라이브(LIVE) 채용 설명회'를 선보인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채용 설명회는 롯데백화점 하계 인턴 채용 설명회로 롯데백화점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 'lotteshopping'을 통해 진행

을 극복하고 구직자의 대다수가 SNS 환경에 익숙한 세대라는 점에 착안, 롯데백화점 인사팀과 마케팅팀이 협업했다. 특히 롯데백화점은 일반적인 정보만 제공했던 기존 채용 설명회와 달리 현실적이면서 세부적인 정보들을 더 많은 구직자들에게 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설명회에는 인사 담당, 상품본부 바이어(Buyer), 디지털사업부 AI팀 직원 등이 직접 출현한다. 직무관련 Q&A, 채용관련 정보, 근무 환경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룰 예정이다.

특히 이번 채용 설명회는 라이브 방송에서 댓글로 질문하면 출연자가 대답하는 형식으로 면접 전형과 관련해 일반적

채용 설명회에서 접하기 힘든 세세한 정보나 근무 환경, 복지 혜택, 입사선배들의 면접 후기 등 롯데백화점에서 근무하면서 겪었던 이색적인 상황들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설명을 진행한다.

설명회는 오는 3일 오후 5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할 예정이며 채용 설명회 중 우수한 질문을 한 5명에게는 16일 이전까지 채용 담당자 및 직무 담당자와 일대일로 상담하는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롯데백화점은 지난 3월에도 직원들이 직접 출현해 회사 소개, 직무특성 등과 관련된 채용 정보를 설명하는 10분 분량의 동영상 촬영하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을 통해 온라인 채용 설명회를 진행했다. 해당 동영상은 페이

스북에서 하루 만에 조회수가 1만건을 돌파할 정도로 큰 인기를 끌며 현재 총 4만건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

한편 롯데백화점은 하계 인턴 모집 기간은 3일부터 16일까지 진행하며 디지털 직무인 '일반' 전형과 MD 직무인 '스펙타클' 전형으로 채용할 예정이다.

류민열 롯데백화점 경영지원부문장은 "지난 3월에 선보였던 채용 설명회 홍보 영상이 큰 인기를 끌면서 이번에는 실시간으로 소통 가능한 채용 설명회를 기획했다"며 "젊은층이 익숙한 SNS에서 진행하는 채용 설명회를 통해 더 많은 구직자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ujin6326@metroseoul.co.kr

## 서울지하철 '고객편의·안전성' 세계 최고

여객 10억명당 사망자수 0명 기록  
엘리베이터 가동률은 99% 달해

서울지하철이 고객 편의와 안전성에서 세계 최상위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서비스품질지표(SQI)를 집계한 결과, 여객 10억명당 총 사망자수는 0명을 기록했다고 1일 밝혔다. 0명 기록은 전 세계 주요 지하철 운영기관 가운데 서울교통공사와 홍콩 뿐이다.

엘리베이터 가동률은 99.41%로 홍콩 지하철(99.75%) 다음으로 높았다. 또 교통약자 1억 1동선 확보율은 90.2%로 세계 지하철 운영기관 중 3위를 차지했다.

이밖에도 100만 근로시간 당 산업재해



발생 건수도 1.09건으로 싱가포르(1.97건)보다 월등히 적은 수치로 1위에 올랐다.

공사는 안전성과 서비스 개선을 위해 세계 지하철 운영기관과 비교가 가능한 국제 표준 서비스 품질 지표 12개를 추가 도입한다.

추가 도입된 국제 표준 서비스 품질 지표는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지를 평

가하기 위한 '여객 10억명 당 총 사망자수'와 고객 이동 서비스 품질 수준을 판단하기 위한 '에스칼레이터 및 엘리베이터 가동률', '교통약자 1억 1동선 확보율', '공사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지표인 '여객 km당 온실가스 배출률', '여객 1인당 전력 소비량' 등이다.

공사는 출범 1주년을 맞아 더 많은 시민이 서비스 품질지표 운영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오는 8일까지 페이스북에서 시민참여 이벤트를 개최한다.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선정된 30명에게 문화상품권을 제공한다.

서울교통공사 김태호 사장은 "공사는 지난 1년간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시민안전과 고객 만족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며 "세계수준 서비스 품질 강화에 집중해 꾸준히 내실을 다지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jk10



정어리 떼와 군무 펼치는 '옥토넷'

1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아쿠아리움에서 '바다탐험대 옥토넷, 바다조류 대소동' 공연이 펼쳐지고 있다. 코엑스 아쿠아리움은 오는 5일부터 8월31일까지 '바다탐험대 옥토넷' 캐릭터들이 정어리 떼와 군무를 펼치는 공연을 국내 최초로 진행한다.

/연합뉴스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전 자치구로 확대

서울시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찾동)'가 25개 전 자치구에서 실시된다.

시는 66개 동이 추가로 찾동으로 전환해 전체 424개 동 중 408개 동(96%)에서 찾동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는 지난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정책이다. 찾동은 민원행정 중심의 동주민센터에서 벗어나 공무원들이 직접 복지가 필요한 주민을 발굴해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부터 확대 예방경찰관, 상담원 등으로 구성된 '위기가정 통합사례 관리팀'이 시범 사업을 시작해 문제 가구를 지원한다.

아울러 찾동 방문간호사가 의뢰한 노인 환자에게 보건소 내 전담팀이 의학 진

단과 약 복용, 영양관리 등을 실시하는 '서울시 마을의사' 제도는 올해 2개 자치구에서 운영된다.

그동안 단순한 참여·자문기구에 머물렀던 동별 주민자치위원회를 정책, 예산 등에 실질적 결정 권한을 갖는 기구로 전환한 '서울형 주민자치회'는 찾동과 연계해 올해 17개 구 91개 동으로 확대된다.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관과 자치구 내 찾동이 팀을 이뤄 사회적 고립 가구를 발굴·지원하고 주민 리더 양성과 같은 민관협력사업을 전개하는 '찾동-복지관 협력 활성화 지원 사업'도 올해 31개 동 12개 복지관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김현정 기자

## 라디오·음반 새 취미로 등장... '외식' 행복한 가정 상징

### 일제강점기 서울사람들 여가생활은?

역사 암흑기라 칭해지는 일제강점기, 서울 사람들은 어떠한 방식으로 여가 생활을 향유했을까.

서울역사편찬원은 일제강점기 서울사람(경성부민)들의 여가생활을 유형별로 조명하는 연구서를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

책은 대로변의 변화와 뒷골목의 유흥, 음반 산업과 기생출신 여가수, 영화 관람과 영화산업, 선술집과 음주의 위계, 여름철 여가활동인 수영과 수영장, 외식 문화의 형성과 경성의 향토음식, 오락장과 공인된 도박장 등 7개의 주제를 다룬다.

여가는 근대를 시작으로 3·1운동 이후 만들어진 개념이다. 위기감을 느낀 조선 총독부는 '교화'를 명목으로 다양한 여가 시설을 만들었다. 공원, 도서관, 운동장 등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극장, 영화관, 카페, 바, 당구장, 경마장 등의 유흥·오락 시설을 조성했다.

라디오와 음반이 새로운 취미로 등장했다. 외식은 행복한 가정을 상징하는 문화현상으로 대두됐다. 이때부터 사람들은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여가생활에 차이가 난다는 점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일제강점기 시절 경성역의 모습.

/서울역사편찬원

경성의 음반산업은 일본에 의존하는 식민적 산업구조로 성장했다. 일본과 조선을 연결하는 레코드회사 간부들은 일본 제국에 의해 만들어진 '슬픈 이미지'라는 조선인의 심성을 마케팅에 활용해 큰 수익을 벌어들였다.

음주 문화는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달라졌다. 선술집은 후미진 골목에 위치했고, 요릿집과 카페는 번듯한 건물에 입주했다. 바와 카페를 통해 근대 일본 음주문화가 경성에 퍼져 나갔다.

한강 수영장은 여름에는 피서지로 겨울에는 스케이트장과 낚시터로 이용됐다. 인도교와 뚝섬, 서빙고 등지의 수영장은 하루에 2만~3만명이 찾는 서울의 대표적 관광지였다.

오락장은 일상의 피로와 고통을 풀고 익명성을 보장받는 공간으로 조성됐다. 그러나 공공시설로서의 오락장의 등장은 도박의 출현을 수반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제강점기 경성부민의 여가생활'은 서울 소재 공공도서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구입을 원할 경우 신청사 시민청의 서울책방에서 1만원에 구매할 수 있다.

김우철 서울역사편찬원장은 "책의 발간을 계기로 일제강점기 서울 사람들의 여가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어 2천년 서울 역사의 체계화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더 좋은 '서울역사 중점연구총서'를 발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 서울시, 창의어린이 놀이터 20곳 추가 조성

50억 투입... 낡은 놀이터 18곳 재조성

서울시가 동네 낡은 놀이터를 창의어린이 놀이터로 바꾼다.

서울시는 올해 16개 자치구에 창의어린이 놀이터 20곳을 추가로 조성한다고 1일 밝혔다.

창의어린이놀이터는 아이들이 놀이 기구에 구애받지 않고 스스로 놀이를 주도해 다양한 놀이를 할 수 있도록 만든 놀이터다. 계획단계에서부터 지역주민과 전문가가 참여한다.

놀이터 20곳 중 18곳은 시비 50억원을 투입해 조성한다. 나머지 도봉구 개나리

어린이공원과 노원구 마들체육공원은 민간단체가 사업비 전액을 지원하는 민관협력 방식으로 만든다.

양천구 양천근린공원 창의어린이놀이터는 어린이날을 맞아 오는 5월 4일 가장 먼저 개장한다. 시는 24년이 넘는 야외 무대를 재생해 놀이 기능이 더해진 배모양의 기구로 만들었다. 놀이터에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해 장애와 비장애 아동, 저학년과 영유아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창의어린이놀이터 자문단은 향후 놀이터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 결과를 반영, 발전 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현정 기자